

다이와보 - 중국의 제품 사업 글로벌로 전개

다이와보는 2005년기에 중국에서의 제품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쑤저우 다이와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을 2004년 11월부터 가동한 파자마 봉제품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제3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리고자, 컷소(cut-sew)의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든다. 또한 쑤저우 시내에 새로 성형 이너의 생산 거점을 만들어 미국으로의 수출을 강화한다.

제1사업 본부에 의하면 월간 2만장의 파자마 봉제품을 생산하는 쑤저우 다이와의 제3공장은 2005년 7~8월경에 2교대의 증산 체제로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3공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T-셔츠 생산을 주로 하는 컷소 생산 라인을 2개 라인 증설하여 여름 상품을 중심으로 11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증설함으로써 제1공장의 7개 라인을 합치면 9개 라인이 되어 T-셔츠 환산으로 월간 65만매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제2공장에서는 월간 1만장의 코트를 생산하는데, 2005년부터 한산기(閑散期)가 되는 1~3월에는 마스터 브랜드로 전개할 “존 헨리”의 재킷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OEM 으로도 대응할 방침이다.

2005년 10월 출발을 목표로 성형 이너의 생산 거점을 쑤저우에 만든다. 초기 투자로는 성형 이너의 기계를 5대 도입하여, 트렁크스로 환산하여 월간 5만매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5대로 늘려 15만매까지 생산한다. 남성용 이너, 트렁크스 등을 생산하여 머지않아 스포츠 이너, 숙녀용 이너 등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형 이너용으로는 일본 내의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마이즈루(舞鶴) 공장에서 생산한 60~80수급의 나일론, 면, 폴리우레탄의 세 가지 혼방 소재나 다이와보 레이온의 소재를 활용한다.

미국 마켓의 내의 판매장을 보면, 90%는 니트 트렁크스나 브리프(brief), 직물의 트렁크스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성형 이너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형 이너는 큰 메이커가 진출하지 않은 분야인 만큼 파고 들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여, 상사와 함께 미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려고 있다.

2004년 9월에 설립한 중국의 제직, 염색 일관의 합판 기업 칭다오즉발용 산염직(靑島即髮龍山染織)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한 직물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제3국의 봉제 거점을 활용할 것인가도 고려하며, 즉발이 가동하게 될 2005년말까지는 활용 방안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